

‘뒷북 정책’ 지적받는 주파수 개방... 통신사들 반응 시큰둥

중장기 국가 주파수 활용 계획
기업들 통신망 구축 기회 제공

통신사, AI 전환 가속화에 주력
정부 주파수 정책엔 미온적 반응
통신사업 정책에, 투자경쟁 둔화

통신사의 주파수 독점 체제가 막을 내렸지만 업계 반응은 미지근하다. 정부는 통신사에만 할당하던 주파수를 다른 업종 사업자에게도 개방하기로 한 데 이어 SK텔레콤의 추가 주파수 할당도 무산했다. 하지만 전산업군은 물론 본업을 뺀 통신업계도 크게 개의치 않아 하는 분위기다. 최근 이동사업이 정체기에 접어들면서 통신사들이 인공지능(AI)사업 투자에 주력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의 뒷북 정책이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1일 새로운 주파수 공급 및 활용전략이 담긴 ‘대한민국 스펙트럼 플랜(2024~2027)’을 발표했다. 스펙트럼 플랜은 중장기 국가 주파수 활용 전략이다.



서울 강남의 한 휴대폰 판매점의 이통3사 로고의 모습. /뉴스시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그동안 이동통신서비스를 중심으로 이뤄지던 주파수 공급을 전 산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통신 기술이 디지털 혁신을 가속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산업 분야에 최적의 이동통신 주파수를 공급하는 것이 정부가 내놓은 청사진이다.

남영준 과기정통부 주파수정책과장은 “제공할 수 있는 주파수 풀을 만들고

수요가 있으면 필요한 주파수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드론, 로봇 등 통신망 연결 디지털 서비스가 대중화됨에 따라, 통신사의 기업들도 통신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 산업을 활성화 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예를 들어 통신사 뿐만 아니라 삼성전자가 지자체와 협력해 드론 특화 도

시를 구축 하려는 경우에도 해당 주파수를 사용할 수 있다.

문제는 정부의 주파수 개방 발표에도 업계 반응은 뜨뜻미지근하다는 점이다. 통신 외 산업군 뿐만 아니라 본업을 뺀 통신사들도 마찬가지이다. SK텔레콤은 2022년부터 요구했던 주파수 추가 할당까지 무산됐지만 크게 개의치 않는 분위기다.

당시 SKT는 LG유플러스가 20MHz 폭의 주파수 대역을 확보하기 위해 추가 할당을 따낼 당시 ‘불공정 경쟁’을 주장하며 크게 반발했었지만 현재는 이와 상반된 반응인 것.

이처럼 통신사들의 반응이 달라진 이유는 최근 5G 등 이동사업이 정체기에 접어들면서 통신사들도 AI를 중심으로 한 신사업에 주력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체 5G 데이터 트래픽은 80만~90만대TB에 머물러 있고 1인당 5G 트래픽도 수년째 30GB 수준이다. 또 5G는 2019년 상용화를 시작한 이래 가입자 수는 첫째 466만8154명에서 2020년 1185만1373명, 2021년 2091만5176명,

2022년 2805만9343명으로 빠르게 성장했다.

실제 통신사들은 5G 이용자가 70%까지 육박하면서 개발보다는 유지보수에 집중하고 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올 상반기 통신3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 합산 CAPEX 규모는 약 2조 6080억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19% 줄었다. SK텔레콤 상반기 CAPEX는 약 7050억원, KT 9609억원, LG유플러스는 9420억원으로 각각 32.1%, 3.8%, 20.2% 줄었다.

이에 따라 정부의 주파수 추가할당 발표가 뒷북 정책이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통신 사업의 정체기가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할당대가를 내며 투자 경쟁을 할 만큼의 동기가 없어졌기 때문이다.

유영상 에스케이텔레콤 대표도 지난 6월 주파수 추가 할당과 관련해 “과거에는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시간이 많이 흘렀다”면서 “정부의 정책적 판단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LG이노텍, 기관 기술로 세계 경쟁력 강화

‘국제PCB·반도체 패키징 산업전’
전시 부스에 하이라이트존 마련
50년 기관 기술로 기업 입지 확립

LG이노텍이 국내 최대 규모의 PCB(인쇄회로기판)·반도체 패키징 전문 전시회에 참가해 혁신 기관을 선보인다.

LG이노텍은 오는 6일까지 인천 송도에서 열리는 ‘국제PCB 및 반도체 패키징 산업전’(KPCA show)에 참가했다고 4일 밝혔다. 올해 21회를 맞는 KPCA show는 한국PCB 및 반도체패키징 산업협회(KPCA)가 주최하는 국내 최대 규모 PCB 및 반도체패키징 전문 전시회다. 국내외 240여개 업체가 참가해, 최신 기술 동향을 공유한다.

LG이노텍은 고부가 반도체용 기관인 ‘플립칩 볼그리드 어레이(FC-BGA·Flip Chip Ball grid Array)’와 함께 ‘패키지 서브스트레이트(Package



4일부터 6일까지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열리는 ‘KPCA show 2024’에 참가하는 LG이노텍의 전시부스. /LG이노텍

Substrate)’, ‘테이프 서브스트레이트(Tape Substrate)’ 분야 혁신 제품과 기술을 선보일 계획이다.

LG이노텍은 전시 부스 가장 앞부분에 하이라이트존을 마련하고, 회사 성장 동력인 FC-BGA에 적용된 최신 기술을 공개한다.

LG이노텍의 FC-BGA는 미세 패터

닝, 초소형 비아(Via·회로연결구멍) 가공 기술 등 독자적인 반도체용 기관 구현 기술이 적용돼 높은 회로 집적도를 자랑한다. LG이노텍은 FC-BGA의 내부 구조를 3D로 확대 구현한 모형을 통해, 관람객이 고다층·고집적 구조적 특징을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반도체용 기관의 고사양화를 위한 최적의 솔루션으로 떠오르고 있는 유리기관(Glass Core) 기술, 고주파잡음을 제거해 고성능 반도체 칩의 신호 전달을 안정적으로 지원하는 기술 등 회사가 준비하는 차세대 혁신 기관 기술도 이번 KPCA 전시회를 통해 처음 선보일 예정이다.

강민석 LG이노텍 기관소재사업부장(부사장)은 “올해 KPCA show에서 LG이노텍이 50년 이상 쌓아온 독보적인 기관 기술력을 국내외 고객들에게 선보이고, 업계 선도 기업 입지를 확고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남영 기자

현대로템, K2전차 등 주력 지상무기 전시

‘폴란드 국제방산전시회’ 참가

현대로템이 폴란드에서 열리는 대규모 방산 전시회에 참가한다.

현대로템은 3~6일(현지시간) 폴란드 남부 도시 키엘체에서 열리는 ‘제32회 폴란드 국제방산전시회’(MSPO)에 참가한다고 4일 밝혔다.

MSPO는 폴란드에서 매년 열리는 동유럽 최대 규모의 국제 방산 전시회다. 지난해 역대 최다인 35개국 방산업체 2만6000여명의 관람객이 찾았고, 한국은 2017년에 이어 두 번째로 주도국 자격으로 초청된 바 있다.

현대로템은 우리군의 주력 지상무기 체계인 K2 전차 수출 등 지속적인 사업 협력을 이어온 폴란드 현지 전시회인 만큼 차세대 플랫폼 라인업을 앞세워 미래 기술력을 알리고 사업 협력 확대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올해 전시회에서는 K2 전차 실물을 전시한다. K2 전차는 2022년 폴란드에 완성품으로 사상 처음 수출했고 올해 상반기까지 총 46대를 납품했다. 올해 하반기 38대, 내년 96대 추가 인도될 예정이다. 30톤급 차륜형장갑차(N-WAV)와 K2 계열 전차인 구난 전차 모형도 함께 선보인다.

해외에 처음으로 공개하는 다목적 무인차량(UGV) 4세대 HR-셰르파(SHERPA) 모형도 배치했다. 4세대 HR-셰르파는 현대로템과 현대자동차그룹이 인공지능(AI)과 자율주행, 무인화, 전동화 분야에서 협업체 개발한 최신행 무인화 차량이다.

현대로템은 이번 전시회를 계기로 향후에도 폴란드와의 협업을 다각도로 이어가고 동시에 현지 군 현대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전사적 역량을 모을 계획이다. /양성운 기자

KT, 10개 AI 벤처와 함께 혁신기술 선보

‘IFA 2024’ 박람회 참가

KT는 오는 6일부터 10일까지 독일 베를린에서 열리는 유럽 최대 가전·정보기술(IT) 전시회 ‘IFA 2024’에 10개 파트너사와 함께 참여한다고 4일 밝혔다. IFA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산업 박람회이자 세계 3대 정보통신기술(ICT) 전시회로 올해 100주년을 맞는다.

미래지향벤처기업·스타트업특별관인 ‘IFA NEXT’에 올해의 국가로 대한민국이 선정됨에 따라 KT도 ‘KT AICT 파트너스관’을 마련했다. 주제는 ‘대한민국 파트너사와 함께 미래로 나아가

는 KT’다. 우수 인공지능(AI) 분야 벤처 중심으로 회사 10곳을 선정해 ‘일상 속의 AI 서비스’라는 주제로 전시관을 구성했다.

이번 전시 공간은 KT의 새로운 브랜드 캠페인 ‘KT, 당신과__미래 사이’를 기반으로 기획됐다. 대한민국 AI·정보통신기술(AICT)의 수많은 가능성을 뜻하는 ‘파티클’이 콘셉트다. 파트너사와 동반성장·상생 협력해 함께 미래로 나아가겠다는 의미를 담아 형상화했다. AI가 구현한 이미지를 모티브로 활용했다.

KT와 AICT 혁신 기술을 선보일 파



KT 관계자들이 3일 ‘IFA 2024’가 개최되는 독일 베를린의 메세 베를린 앞에서 KT의 AICT 파트너스관을 홍보하고 있다. /KT

트너사는 ‘환다’, ‘슈퍼브 AI(Superb AI)’, ‘래블업’, ‘에이아이오투오’, ‘원컵’, ‘비전스페이스’, ‘케이엘큐브’, ‘메이아이’, ‘크리에이티브마인드’, ‘넥스브레인’이다. /이해민 기자 hyem@

전력 관리 솔루션으로 데이터센터 시장 공략

LS머트리얼즈 버티브와 업무협약

LS머트리얼즈가 데이터센터 전력 관리 솔루션 시장에 진입해 경쟁력을 강화한다.

LS머트리얼즈는 글로벌 전력 인프라 기업인 버티브코리아(Vertiv, 이하 ‘버티브’)와 ‘데이터센터 전력 관리 솔루션’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LS머트리얼즈는 버티브의 일반 IDC와 AIDC(AI 데이터센터)용 전력 관리 솔루션에 울트라커패시터(UC)를 공급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기존 IDC 시장에서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고, AI용 IDC(AIDC) 시장도 선점한다는 전략

이다.

UC는 전력 사용의 급격한 변동에 신속히 대응하는 고성능 전력 저장 장치로 AIDC와 IDC의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보장한다. LS머트리얼즈의 UC는 기존 리튬이온배터리(LIB)보다 충·방전 속도가 20배 이상 빠르고, 수명도 1000배 길어 뛰어난 성능을 자랑한다.

이 솔루션은 IDC의 UPS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에는 정전 시 LIB로 비상발전기가동 시간을 커버했지만, 발전기 성능 향상으로 정전 대응시간이 줄어들면서 출력이크고 수명이 긴 UC가 더 효율적인 대안이 되고 있다.

/차현정 기자 hyeon@